

2025년 중임교섭

금속노사가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 산안법보다 상향된 작업중지권

조합원뿐만 아니라 사내하청을 포함한 회사 내 노동자와
산보위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권 보장으로 권리 주체를 확대했습니다.

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 요건도 완화하였습니다.
회사가 안전·보건 조치 후 조합에 알려 확인한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징계, 해고, 손해, 고소·고발 금지 등
작업중지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명확하게 했습니다.
사내협력업체 대상 교육·홍보 정책 시행을 통해
작업중지권리 확산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기후위기가 초래할 일자리 위기 선제 대응

사용자에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관리·저감 의무를
부과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력 증진하였습니다



협력사 온실가스 배출 저감
촉진 정책 시행을 통해
공급망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각종 기후위기 대응책을 함께
논의할 노사협의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